



연중 제33주일(11월 16일)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루카 21,5-19)



성전 파괴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루카 21,17-19) 하느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생명의 복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생명의 백성이 되었다.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때 수많은 반대와 미움을 받았지만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에게서 힘을 얻는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니콜라스 푸생 | 1637년, 유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미국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8번 “주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주님, 단순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당신의 말씀에 머물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루카 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5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6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7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8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9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10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11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12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13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14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15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16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



이다. 17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18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19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미디어 매체에서 전하는 근거 없는 정보(예언, 선동)에 아무 저항 없이 빠져든 적이 있습니까?

나는 미래의 징조나 예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대에도 종말이 가까왔다고 주장하고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사이비 종교 예언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해석과 그에 따른 가르침을 잘 분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성경의 의미를 왜곡하고, 또 잘못 해석하여 많은 사람이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예언자가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짓 예언자들을 가려내고, 그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구해주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처하는 역경과 고난에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자원을 제공합니다. 종교를 단순히 미래주의라는 환상 속으로 도피하는 형태에 불과하다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동시에 공동체를 만들고, 불의에 맞서고, 평화를 위해 일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시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장벽을 초월하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권력과 부의 남용에 맞서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실천하도록 다시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복음에 비추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한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하기에 고통스럽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역경과 고통을 겪는 사람의 믿음은 단련되고 그 고통은 기쁨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징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써보기 [루카 21장 19절]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말씀나누기 이 시간은 원하는 소공동체에서만 진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함께하기

| 진행자 | : 우리 소공동체가 희년을 살아가며 실천할 사항들을 정해 봅시다.

◀ 도움이 필요한 이들 ▶ 11월 16일, 가난한 이들의 희년 일정에 따라

공동체와 함께

- ① 우리 공동체 속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 고민해보기 (예: 독거노인 미용 봉사, 청소년 도서 구입 지원 등)

내 삶 속에서

- ① 내 주위 물질적, 정신적 도움이 필요한 이를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묵상하기
- ② 묵상 후, 도움이 필요한 이가 있다면 내 능력 안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 찾아보기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36번 “주 날개 밑”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